

해외 ICT 표준화 동향

2015. 12

3rd Week

목 차

■ 본문

1. 한국, 2015년 'ICT 발전지수(ITU IDI)' 1위 차지
2. TTA, 통신인프라 관련 기술위원회(R-42.1) 표준 작업 착수

■ 기타소식 5 쪽
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

게시물 보기 : TTA 홈페이지 ▷ 자료마당 ▷ TTA간행물 ▷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

1. 한국, 2015년 'ICT 발전지수(ITU IDI)' 1위 차지

(ITU statistics symposium underlines enormous untapped potential of ICTs to improve socio-economic development)

보도날짜 2015.12.03

출 처 ITU

사 이 트 http://www.itu.int/net/pressoffice/press_releases/2015/CM19.aspx#.VmYi5nnot9B

- 2015년 11월 30일 ~ 12월 2일, 일본 히로시마에서 ITU 세계 전기통신/ICT 지표 심포지엄 (WTIS-15, World Telecommunication/ICT Indicators Symposium)*이 개최됨
 - WTIS는 정보통신 및 정보사회 측정 관련 글로벌 포럼으로, ICT 데이터 사용자와 생산자가 만날 수 있는 고유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서로의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을 마련함
 -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88개국에서 부총리, 정부 장관, 부통령, 기업 사장 및 회장, 학계 및 UN 기관 등 6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참가함
 -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개발 동력으로써의 ICT에 초점을 맞춘 장관급 회담에 이어 ITU의 1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행사의 일환으로 ICT 미래 동향, 정책 및 조치 문제 등이 논의됨
 - 참가자들은 빅데이터, ICT의 사회경제적 영향 측정, ICT 통계 및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, ICT 혁신 정책방법, ICT 개발을 위한 IoT 구동 데이터 사용 등의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토론함
- 또한, ITU의 대표 연례보고서인 “정보사회 측정 보고서(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)”도 발표됨
 - WTIS-15에서 이 보고서의 연례 ICT 개발지수의 국가순위가 발표되었는데, 한국이 1위를 차지했음. 이는 167개국 가운데 ‘ICT 접근, 사용, 기술’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결과로, 한국에 이어 덴마크와 아이슬란드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함 (<http://www.itu.int/net4/ITU-D/idi/2015/>)

* ITU IDI는 정부와 UN기구, 그리고 업계에서 ICT 개발에 있어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지표로 여겨짐. IDI는 11개의 지표를 결합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지역적, 국가적 벤치마킹 도구로 사용가능하며 ICT개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음. IDI는 ICT 접근, 사용, 기술 등을 측정하는데 여기에는 휴대전화 가입, 가정의 컴퓨터 보유, 인터넷 사용자, 고정 및 이동 광대역 인터넷 가입, 기본 식자율(literacy

rate) 등이 포함됨

- ITU의 사무총장 홀린자오(Houlin Zhao)는 ICT기술이 2030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구현에 필수적이고, 지표(Indicators)는 미래 계획과 개발을 위한 유용한 참조로, 질 좋은 데이터는 질 좋은 정책 결정을 뜻하고, 더 나은 투자 결정을 의미한다고 언급함
- 일본 총무성(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) 장관 다카시(H.E. Sanae Takaichi)는 WTIS-15가 2030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관련된 ICT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빈곤, 환경문제, 건강 및 교육, 여성 및 젊은이 등과 같은 디지털 격차 문제의 해소, 글로벌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, 이 중 몇몇 주제는 2016년 일본에서 열리는 G7 ICT 장관회의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라고 언급함
- ITU-T 개발국장인 브라마 사누(Brahima Sanou)는 인류에게 있어 통계와 숫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ITU 임무가 ICT를 일반 사람들의 삶에 접목시키는 것이라며, 정보사회를 측정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사회 경제 개발을 향한 과정들을 추적할 수 있다고 언급함

2. TIA, 통신인프라 관련 기술위원회(R-42.1) 표준 작업 착수

(TIA Issues Call for Interest on New Project for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Standard for Data Centers)

보도날짜 2015.12.03

출 처 TIA

사 이 트 <http://www.tiaonline.org/news-media/press-releases/tia-issues-call-interest-new-project-telecommunications-infrastructure>

- 미국 통신산업협회(TIA)의 상업용 건물 통신케이블 관련 R-42.1 기술위원회(EC)는 TIA-942-B 문서인 "데이터센터에 관한 통신 인프라 표준"에 관한 관심을 표명함
 - TIA-942 표준은 단일 입주자 기업(single tenant enterprise) 데이터센터 및 다중 입주자(multi-tenant) 인터넷 호스팅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데이터센터와 컴퓨터 공간의 통신 인프라와 관련한 최소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음
 - 또한, 표준에 명시된 위상 기하학(topology)은 어떤 규모의 데이터센터이든지 적용 가능하기 위함으로, 데이터센터 케이블링 표준의 개정은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의 개선 및 더 높은 대역폭 및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변화를 위한 것임
 - 표준은 기존 데이터센터를 평가하고 새로운 데이터센터의 설계적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예정으로, 여기에 케이블링, 시설 및 네트워크 설계 요소 등이 포함됨
- TR-42.1 의장인 헨리 프랑스(Henry Franc)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
 - 열 관리, 에너지 효율, 속도 및 전력 등과 함께 IoT, 기술, 토폴로지의 끊임없는 발전은 향후 있을 데이터센터를 위한 통신 인프라 표준 개정에 맞춰 조정될 예정임
 -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변화 및 성장은 개인적, 전문적, 사회적으로 인간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, 그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음. 이 표준은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임
- TR-42.1에는 통신, 데이터센터 운영자/소유자 및 디자이너, 프로젝트 매니저, 검증된 내·외부 회계감사, 검증된 디자인 컨설턴트, 건축가, 엔지니어링 업체, 사용자, 제조업체 등이 이해관계자로 포함될 수 있음

기타 소식

CCSA, '이동인터넷+자동차' 혁신발전기술연구회 개최

▶ 출처 : <http://www.ccsa.org.cn/worknews/content.php3?id=3144> (2015.12.03.)

- 2015년 11월 24일, 중국통신표준화협회(CCSA)의 이동인터넷 응용 및 종단기술 작업위원회(TC11)가 중국 충칭에서 제 12차 "이동인터넷+자동차혁신발전기술연구회"를 개최됨
- 해당 연구회에서는 '이동인터넷+자동차'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도가 강조되었고, '이동인터넷+자동차' 핵심기술, 일반 산업용 응용, 솔루션, 표준화, 지적재산권,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, 테스트평가 등을 착수하였음

TTC, e-health표준화 최신동향 발표

▶ 출처 : <http://www.ttc.or.jp/j/info/topics/rep20151202/> (2015.12.04.)

- TTC는 2015년 11월 2일 "e-health 표준화 최신동향 - 뇌 정보 활용"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함
- 본 세미나에서는 ICT 분야의 중요 검토과제인 e-health에 대한 WHO의 노력과 ITU-T 국제표준화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상황과 개발도상국의 e-health 현황에 대해 소개함